

동부하수처리장 갈등 극한으로...

월정리 주민들 65일째 처리장 진입로 봉쇄
도, 공문 발송... “계속 봉쇄하면 형사 고발”
주민 “도가 마을 겁박... 증설 시도 멈춰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제주도와 월정리 주민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가 증설에 반대하며 하수처리장 진입로를 봉쇄한 월정리 측에 봉쇄를 풀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자, 마을 측은 도정이 주민을 억박지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월정리 주민들에 따르면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24일 제주 시 구좌읍 월정리장에게 공문을 보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진입로 봉쇄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상하수도본부 측은 공문에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65일째 (마을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진입로를 트랙터 등으로 막고 있어 하수 슬러지(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출 중단으로 현장에 쌓아놓은 하수 슬러지가 360t에 달하면서 악취를 풍기고 있고, 하수 처리에 필요한 약품도 반입하지 못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수 슬러지 반출과 하수 처리 약품 반입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회가 진입로 봉쇄 해제 조건으로 내건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상하수도본부 측은 “증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월정리가 대책위원회 등 책임있는 협의 창구를 정해주면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면서도 “하수 슬러지 반출과 약품 반입을 계속 저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민·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상하수도본부 측은 주민들이 진입로 봉쇄를 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등 공권력 투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느냐, 마느냐와 현재 시설된 하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이 둘을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다만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은 증설 시도를 중단해야만 진입로 봉쇄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창현 월정리장은 “4개월 간 계속된 시위로 주민들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며 “제주도는 새 도정이 들어설 때까지 우선 증설 시도를 멈추고, 또 주민들은 진입로 봉쇄를 푸는 등 서로가 한발짝씩 양보하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갖자고 제안했는데 다짜고짜 사법처리를 운운하며 주민들을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설을 멈춰야 진입로 봉쇄를 해제하겠다는) 우리 측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의 1일 평균 하수 처리량이 1만 1595t으로 처리 용량의 96%에 육박하자 시설을 2만4000t 규모로 증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천연기념물인 월정리 웅천동굴 위에 세워져 있다며 증설 시도를 중단하는 한편, 더 나아가 하수처리장을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최근 3년 설 연휴 119신고 7958건

소방본부 28일부터 특별근무... 장비 100% 가동

설 연휴를 앞두고 제주소방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설 연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119신고접수 건수는 총 7958건으로 구급 1896건, 구조 416건, 화재 153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791건, 2020년 2767건, 지난해 2400건이다.

올해 설 연휴 제주소방은 기존처럼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화

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진행한다. 또 소방차량·개인보호장비, 월동장비 등 소방장비 100%가 동체제에 유지한다.

아울러 건축공사장 화재 등 대형사고에 대비해 연면적 3000㎡ 이상 공사장(73개소)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소방특별조사 및 도내 물류창고(33개소)에 대한 긴급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119신고 폭주를 대비해 수보대를 11대에서 17대로 확대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자치경찰, 설 연휴 방역 지원체계 구축

예비대 97명 편성·운영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도내 코로나19 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즉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설 연휴 기간 자체 예비대 97명을 편성·운영해 제주도가 방역 관련 지원 요청을 할 경우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자치경찰단 특별 종합상황실

을 운영하며 교통관리,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 활동을 벌인다.

다불어 자가격리자 급증에 대비한 질서유지 근무자 60명도 별도 편성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설을 앞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설 연휴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즉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방역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남에게 판 땅 가격 오르자 ‘판 생각’

소유권 이전 등기 늦추고 근저당 설정 60대 실행

땅을 판매한 뒤 지가가 오르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고, 은행에 근저당까지 설정한 60대가 실행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13일 자신이 소유하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토지를 피해자 A씨에게 59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토지의 땅값

이 상승하자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했고, 결국 A씨는 2016년 5월 13일 제주지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8년 최종 승소했다.

법원 판결로 김씨는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했지만 지난 2020년 6월 9일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해 B은행에 채권최고액 16억8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 C회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등을 진행했다.

김씨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으로 인해 A씨는 9억8333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송은범기자



비 오는 날, 더 상큼해진 수선화 비가 내린 25일 한라수목원에 핀 수선화가 비를 머금어 더욱 상큼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상민기자

대선 개표 한라체육관→사라봉체육관

선관위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따라 변경”

제주 선거 개표의 대표적 장소인 ‘한라체육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는 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주지역 개표를 한라체육관(1494㎡)이 아닌 사라봉다목적체육관(3546㎡)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라체육관이 코

나19 백신접종센터로 활용되면서 비슷한 규모의 체육관을 찾은 끝에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기존대로 올림피기념국민생활관에서 실시된다.

한라체육관의 개표 역사는 1995년 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됐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북상경기 대관)를 제외하고는 개표 작업이 계속 이어졌다. 한라체

육관 이전에는 시민회관이 개표 장소로 활용됐다.

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라체육관을 대체할 개표 장소로 사라봉다목적체육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때도 이 곳에서 개표를 할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중앙고등학교총동창회

2022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제30대 집행부 임원

직	성명	회기
명예회장	오현봉	8
직전회장	홍창구	21
수석부회장	이병철	24
감사	김상주	19
	양경택	28
	심재용	33
여성동문회장	김정순	25
봉사부회장	강숙자	20
기획조정부회장	김인	22
대외협력부회장	오중훈	22
조직1부회장	최원철	22
조직2부회장	한재진	22
총무부회장	변영재	22
윤리부회장	백경자	23
의전부회장	홍우기	25
모교지원부회장	이문생	25
심외부회장	이문생	25
직능부회장	정평원	26
문화부회장	고석만	27
정부부회장	이권성	27
복지부회장	고옥자	28

회기별 회장

회기	성명	회기	성명
1	양두길	24	김세현
2	김태능	25	강한섭
3	김석진	26	오중철
4	송창흠	27	김재환
5	장군천	28	김창진
6	문영희	29	이종철
7	박용택	30	김대인
8	양상원	31	박여삼
9	박경진	32	최동식
10	김홍기	33	김왕봉
11	한정호	34	이명수
12	강상문	35	주승남
13	오재윤	36	진영한
14	양두환	37	장화신
15	김명익	38	박성훈
16	이창수	39	문원호
17	김병식	40	박상진
18	이광희	41	박우철
19	변창익	42	한기종
20	임영근	43	조명근
21	김용석	44	조규봉
22	김인	45	황신제
23	염성만	46	고희전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3만5천여 동문 및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2022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임회장
유재호(22회)



취임회장
이병철(24회)

감사패

오현봉(8회) 명예회장
좌남수(15회) 제주도의회 의장
최범윤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장

자랑스런 동문상

신애복(19회) 고문화(22회) 최원철(22회)
고운봉(24회) 고봉학(24회) 양인정(27회)
이중근(27회) 고옥자(28회) 송용주(28회)
김문일(31회) 부동석(31회) 김형은(32회)
송정열(38회)

2천만탑
변창익(19회)

공로패
22회 동창회(김인)
골프 동호회(고충남)

연락처 총동창회사무처 ☎ 758-5335
사무처장 이동화 (30회) 010-6669-3357

제주중앙고등학교총동창회 이임 회장 유재호(22회) · 취임 회장 이병철(24회)